새물리 학술지 Scopus 등재 국제 학술지로서의 새로운 도약

새물리 SCOPUS 등재 기념 새물리 발전을 위한 간담회

DOI: 10.3938/PhiT.25.016

일 시 2015년 12월 15일(금), 12시 30분 - 14시 30분

장 소 시청역 달개비

참석자 김철성 _국민대, 전 새물리 편집위원장 황보창권 _인하대, 전 새물리 편집위원장 홍순철 _울산대, 전 새물리 편집위원장
김건호 _경상대, 전 새물리 편집위원장 김승환 _포항공대, 한국물리학회장 천승현 _세종대, 총무이사
김귀년 _경북대, 새물리 편집위원장 부상돈 _전북대, 새물리 실무이사 이창환 _부산대, 새물리 부실무이사
임성민 _대구대, 새물리 부실무이사

Commemorative Talkfest on the Future of New Physics: Sae Mulli in Celebration of Its Registration in Scopus

New Physics: Sae Mulli (NPSM) was registered in Scopus in 2015. The registration of NPSM, as the first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in Scopus has been a long-term dream of the Society. The Society held a commemorative talkfest with former chief editors and elders to celebrate the registration of NPSM in Scopus and to discuss the future of NPSM. This is a summary of that talkfest.

간담회를 시작하여

김승환 연말이라 바쁜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물리학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새물리가 SCOPUS 등재라고 하는 큰 관문을 여러 집행부들의 노고로 통과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물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 정에 멤버들을 모시고 추가적인 생각과 새물리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또 피드백을 받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바쁜 중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이사인 부상돈 교수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부상돈 네, 간단하게 경과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에 SCOPUS 등재 연락을 받았습니다. Elsevier 한국지사에 따르면 12월 말부터 논문 등재 작업을 하는데 2015년 1월호 논문들부터 등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재가 된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한국연구재단과 Elsevier 공동 주최 학술지 편집인 워크숍에서 등재 사례 발표, 과총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에서 등재 사례 발표, 과편협 News Letter에 등재 후기 원고 작성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과편협 영문 학술지인 Science Editing에도 등재 후기 원고를 보냈습니다. 또한 과편협에서 새물리 초기 역사에 대한 영문 원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새물리 창간 이후 초창기 사례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편, SCOPUS 연락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등재 이후에 재평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평가항목을 보시면, 자기인용의 경우 기준이 200%입니다. 이 이야기는 SCOPUS에 등재된 물리학 분야 학술지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학술지의 자기인용 횟수가 전체 학술지 평균값의 200%까지는 괜찮다는 것이어서, 새물리의 경우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이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용인 경우 50%입니다. 즉, 물리 분야의 저널이 10개가 있을 경우 그 저널들의 인용 횟수의 평균값을 났을 때 저희가 평균값 밑일 경우 과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류에서 보시는 여섯 개 항목 중 점수가 제시한 기준 값보다 낮은 항목이 있을 경우 연락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저널의 영향력 지수와 article 수도 있습니다. Article 수는 1년 출판되는 논문의 수가 평균값 이하이면 이 항목에서 점수를 못 받는 것입니다. 저널의 영향력은 초록이 클릭된 횟수, 전문

이용 클릭 등의 통계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김승환 전문 이용 통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상돈 논문 본문 다운로드 횟수입니다. Full text입니다. 회
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굉장
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잠시 말씀 드
리겠습니다. 61년에 새물리가 창간되었으며, 2010년 이전은
주요 사건 위주로 간략히 말씀 드리면, 99년에 새물리와 물
리교육 학술지 합병이 있었고, 2000년에 월간지화 되었습니
다. SCOPUS 등재를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준
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에 학술지 이름의 영문명 개정
이 있었고, 2010년부터 영어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하였습니
다. 2013년에 새물리 독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61년 논
문부터 현재까지의 논문을 전부 게시하였습니다. eISSN 번
호도 발급 받았고, 표지 논문과 하이라이트 논문을 선정하여
물침에 홍보하고, 표지 논문의 경우 학술지 표지에 그림을
실었습니다. CrossCheck, CrossRef, CrossMark에 가입을
하였고, Open Access에도 가입하여 모든 논문의 하단에
Open Access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새물리 약어를 선정
하고 등록하였으며, Erratum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술지 윤
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투고규정, 심사규정은 수정하였습니
다. 논문의 그림 quality 등을 저자가 체크하도록 하는 저자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습니다. 총설논문 끝에 저자의 사진과
약력을 표기하는 저자 소개란을 신설하였고, 해외 편집위원
을 영입하였습니다. 현재 11분이 해외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매월 15편의 논문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는데,
SCOPUS 등재 이후에 투고 논문 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승환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부상돈 지금 출판 대기인 논문이 약 40편 정도 됩니다. 후반
부에 논의하겠지만 현재 한 달에 15편 정도 게재되는데 내
년부터는 한 달에 17~20편 정도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새물리 현황 보고

부상돈 다음은 논의 사항입니다. 사실, SCOPUS 등재되고 나
서 처음에 인용지수가 얼마가 나올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앞
으로 저널의 질 향상을 위한 주제별 특집호 및 주제별 총설
논문 선정, 우수논문 유치를 위한 국제 학회 특집호 유치,
인용지수 증대를 위한 학술지간 공조 노력 및 우수 논문의

한글 영문 동시 출판 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수 논문 한글 영문 동시 출판은 저희들이 우수 논문을 선
정해서 한영 언어로 동시 출판하는 것입니다.

논문 편수 관련입니다. 올해까지는 매월 발행 편수를 평균
15편으로 조절하였는데, 지금 접수된 논문 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2~3편 정도 증편하여 한 달에 17~20편까
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부 특별호가 있는데,
지부 특별호에서 나오는 논문들의 인용 횟수는 좀 적은 편
이며, 어떤 분은 많은 편수의 논문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JKPS와 CAP의 편집 내규를 참고해서 저자 한명 당 2편까
지만 게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제 SCOPUS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특별호 신
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지부 특별호는 특별호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정기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
부 특별호는 새물리가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
는데, 내년에 특별호 규정 개정이 예상되므로 지부 특별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논이 필요합니다. 지부 특별호는 지원
금이 있는데, 앞으로 작은 워크숍 특별호의 경우 지원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부 특별호는 지
부 활성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논문 편수가 많으면 그보다 더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작년에 과총과 연구재단 평가에서 3가지 미비한 항목
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최근 10년
간 편집위원장 교체 횟수, 이것은 10년간 편집위원장이
바뀌지 않아야 만점이며 여러 번 바뀌면 감점입니다. Full-
text XML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참고문헌 DOI를 통한 전문 연결 기능도 없습니다. 이 항목
들에 대한 출판사의 견적을 받았는데 한 편당 5만 원이 든
다고 합니다. 수작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XML도 그림과 본
문 등을 각각 연결해야 합니다. 1년에 약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홍순철 XML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부상돈 네, 그것도 수작업으로 그림을 하나씩 넣는 것이라서 다 지불해야 합니다. SCOPUS 재평가 항목에 '전문을 몇 번 보았는가'가 있는데, 이 항목은 full-text XML과 DOI 연결 기능이 없으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자에게 게재료를 5만 원씩 더 받자는 안과 현재는 국내 출판사로 되어 있는데 JKPS와 CAP와 같이 해외 출판사는 자동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기에 출판사를 외국 출판사로 변경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출판사에 5만원씩 지불하는 정도면 학회에서 새물리 전담 직원을 한 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보창권 월 15편은 지부 특별호를 포함해서인가요?

부상돈 네, 모두 합하여 15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판 대기 중인 논문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한 달에 20편 정도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게재료 페이지당 3만 원은, 새물리의 특성상 SCOPUS 등재 전에는 논문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JKPS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SCOPUS 등재가 되었고 학교의 교내 평가에 SCOPUS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부의 논문을 2배, 3배로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JKPS는 페이지당 5만 원(TeX로 투고할 경우), 6만 원(워드 투고할 경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두 배입니다. JKPS 같은 경우는 기본이 4페이지 정도이므로 보통 논문당 20만 원 정도입니다. 새물리도 거의 4페이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full-text XML과 DOI 관련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이는 출판사와 관련이 있는데, 연구재단이나 과총 평가에서는 국내 출판사를 더 추천합니다. 해외 출판사로 나가는 경우 약간의 감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국내 출판사에서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도 고민거리입니다.

김철성 과총과 연구재단의 지원금이 있지 않나요?

부상돈 예, 지원 나오는데요, JKPS와 CAP도 역시 지원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점수에 따라 나오는데, 작년의 경우 새물리의 점수가 잘 나와서 천오백만 원 받았습니다.

홍순철 JKPS와 CAP이 지원금을 적게 받은 이유는 해외 출판사 때문은 아닌가요?

부상돈 네, 그것은 Open Access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새물리는 SCOPUS에 등재되기 위하여 open access를 가입했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재평가 대비인데요, 앞에서 말씀 드렸던 SCOPUS 재평가를 대비해야 합니다.

김승환 재평가 시점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상돈 설명회에서는 등재된 모든 저널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난 2년간의 통계 데이터를 본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부터 등재되었지만 내년도에 할 것 같습니다. 등재되어 있는 저널은 모두 다 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평가할 것 같습니다. 재평가 시기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10월쯤으로 예상됩니다.

김승환 그럼 데이터는 언제까지의 자료를 보나요?

부상돈 최근 2년이라고 했으나 2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5년 1월 자료부터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평가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약 2~3년의 준비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 기간 후에 다시 평가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탈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4년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총 과편협에서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새물리 초기 역사에 대한 원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의논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물리 발전 방안 논의

천승현 먼저 원고 청탁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화학회에서도 제일 오래된 잡지에 대해서 쓴 것이 있는데 재미있게 잘 쓰여졌습니다. 초대 편집위원장의 사진부터 시작해서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가 쓰게 되면 제대로 쓰고 예전의 재미있던 에피소드도 많이 넣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셨으니까, 새물리 관련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숨겨진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십사 합니다.

김승환 화학회는 46년부터 지금까지. 진짜 초기 역사네요.

부상돈 과편협에서 보내주신 참고자료인데요, 화학과 진정일 교수님께서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하게 되면 61년부터 지금까지, 초기의 초창기의 역사를 보여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보창원 새물리와 물리교육과의 합병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김승환 새물리 관련 최근 이야기가 많으므로 1999년 이후 후반부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부상돈 과편협 편집위원장 김기홍 교수님에 의하면 새물리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김승환 그렇죠. 지금 현재 새물리의 홍보까지도 포함되어야, 새물리의 SCOPUS까지 포함되어야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죠.

천승현 초기 역사가 들어가는 것은 물리학회의 전통을 강조 하자는 면이 있었던 것 같구요.

김승환 화학회도 41년부터니까, 이때는 역사가 꽤 있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초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초기만 쓰면 좀 그러니까 61년부터 물리학회의 역사를 처음에 조금 언급하면서 새물리가 SCOPUS에 등재된 것으로.

천승현 새물리 전에는 전혀 그런 출판과 관계된 것이 없었나요? 50년도 이전에는.

김철성 내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물리가 물리학회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새물리 편집 실무진에서 옛날에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네요. 옛날에는 논문이 적어서 힘들었는데. 그때도 새물리를 빨리 없애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로 분들이나 뜻이 있는 분들이 한국물리학회 역사를 없애려고 하나며 완강히 반대하시고 새물리를 지키고 발전해 와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새물리의 질적인 요소로 자꾸 확대하려는데요, 아무리 나가더라도 JKPS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는 정통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저널로 추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특별호도 힘들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통사정을 해서 100만 원을 드릴 테니 conference를 열어서 논문을 게

재해 주십시오 했었는데, 이제 와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면 조금. 오히려 100만원 지원책을 200만 원으로 늘려 드리면서 대신 논문을 조금 더 질적인 면에서 향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만 원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올리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물리학회에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시점에서 저는 새물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셨을 거예요. 영문지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한글을 잊게 되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 좋은 논문 같은 경우는 Nature, Science로 갈 것이라고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려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한글 논문지 새물리를 조금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희생이 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000만 원 정도로 직원도 한편으로는 채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조금 미묘한 문젠데, 우리 회장님 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결심이나면 결과적으로 새물리를 많이 좀 봐야, 인용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Full text를 뽑아내야 한다는 말인데 우리 스스로가 솔직히 새물리를 잘 안보잖아요. 하다가 안되면 새물리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새물리를 많이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새물리와 물리학과 첨단기술의 관계 정립

김철성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재무를 할 때에 물리학과 첨단기술을 fancy하게 아티지로 변경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나면, “이것은 정말로 홍보성이다. 대신 여러 다른 광고나 수입으로 자급자족으로 하자”는 기본적인 철학을 내세워서 진행했는데, 지금은 홍보잡지에 상당한 액수를 학회에서 전적으로 대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홍보잡지 기획 당시 제가 재무간사였기에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0년이 넘도록 매년 5천만 원 넘게 들고 있죠. 이제는 홍보잡지를 말 그대로 홍보로 가져 이거죠. 물리학과 첨단기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물리는 어렵다’, ‘홍보잡지를 발간하면 발간할수록 물리는 어렵다’입니다. 홍보잡지에 해당하는 특집호는 새물리에 싣고, 정말 홍보잡지는 그 내용을 일반 대중이 이해할 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8월경 물리학과에 해당하는 임시 요강에 홍보잡지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화학도 어려워요. 금년 통계에 물리2 선택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물리가 1.7%인데 화학2가 2%예요. 모두들 화학을 10%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거든요.

하나 더, 조금 더 좋은 논문을 발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에게 질 높은 특집호를 받는 방안, IBS 사업단 논문을 해외 저널에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1년에 1편 정도는 IBS 특집호로 해서 IBS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새물리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승환 아이디어가 샘솟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뜻은 현재 홍보잡지의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현 홍보잡지의 내용은 오히려 새물리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홍보잡지는 조금 더 눈을 낮춰서 조금 더 쉬운 콘텐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감이 가는 면이 있죠.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새물리의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이죠. 논문 편수도 증가하고.

천승현 홍보잡지에서는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웹진으로 바꾸는 방안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번이지만 회원들이, 비록 어렵긴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유지를 하자는 방향으로 내부적 의견이 모아졌구요.

김승환 눈높이는?

김귀년 제가 물점으로부터 원고를 요청을 받았는데, 힘들더라고요. 사실 논문 한 편을 쓰는 것 같고. 예산은 유지하되 물점 눈높이를 낮춰서, 정말로 홍보잡지는 고등학생이나 일반 사람도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가고, 현 물점에 있는 글들이 새물리 Review 논문으로 오면 좋겠어요.

김철성 회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새물리와 물점 편집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논의할 필요가 있죠. 각 이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물리학과 첨단기술에 어려우면 새물리 쪽으로 돌리면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학과 첨단기술은 물리가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 그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학회차원에서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김승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황보창권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 어찌 되었든 물점은 물점대로 잘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SCI나 SCOPUS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 상황에서 물점의 지원에 비해 새물리의 지원은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새물리가 먼저 SCOPUS에 등재된 아주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quality도 올리고 양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은 많이 들겠지만, 지난 7~8년 고생해서 SCOPUS에 진입을 한 것을 생각하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고 다른 학회에도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물점 편집 간사를 했었는데 물점을 편집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이 강해요. 전통이 있어서. 그래서 내부에서 편집하시는 편집위원들께서 스스로 변화를 해야겠다고 느끼는 것이 강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사실 새물리도 그렇게 한 것이 아녘니까. 이번에 CAP, JKPS, 새물리까지 우리 저널들의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므로, 물점에서도 조금 더 내부적인 의견을 모으고, 변화를 스스로 모색하고, 본부에 어떤 요청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남기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부상돈 예전에는 사실 통합애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김철성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새물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물리학회회를 위해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총장들이 왜 학과를 통폐합시키려고 하나면 물리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리학과 첨단기술이라는 홍보잡지의 성격이 너무나 어려운 쪽을 더 홍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우리가 좀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요. 물리학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물점에 해당하는 지원의 일부를 새물리로 좀 이동하는 흐름으로 가자는 것이지. 만약 이번 집행부에서 물점은 건드리지 않고 새물리만 바꾸자고 하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물리학회 발전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요. 홍보잡지와 새물리가 영원한 숙제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환 알겠습니다. 이미 말씀 드린 대로 3개 저널이 각각 발전하면서, 남아있는 숙제가 물리학과 첨단기술인만큼 서로 발전을 위한 내부적인 모색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고요. 학회 예산을 연말에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돈을 절약하는 것에 상관없이 새물리 지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몇 년 지나고 보면 각 저널 사이에 연결고리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성 내년 봄 총회에 회원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는 건 어떨지. 새물리, JKPS, CAP이 나아갈 방향 등 전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물침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철성 회장님께 하나 건의 사항이 있는데, 지부학회에 회장님이 직접 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면 새물리도 살고 물리학회도 살고.

황보창권 논문 편수 그리고 게재료 관련해서, SCOPUS에 들어갔다고 해서 논문 편수가 급방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high quality의 논문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나. 당분간은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갑자기 돈을 올려버리면 괜히 역효과를 보일 수 있으니, 현 상태로 조금 더 가고, 확실하게 20편 이상으로 올라간 다음에는 인상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물리 발전 방안

부상돈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사실 XML과 DOI 작업을 하는 데 돈이 들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건호 그런데 그 돈은 일단 출판사를 외국으로 옮기지 않으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회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천승현 참고로 내년부터 지부 지원금을 두 배까지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니 미리 계획을 세워 두시고 추가 지원금에 대비해서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ML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재무는 아니지만 재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회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야 되겠죠.

김귀년 논의사항 1번 저널의 질 향상을 위해서 Review article을 싣고 있는데, 지금 새물리에서 1년에 6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12편으로 하면 돈이 두 배로 드는데, Review article은 많이 게재할수록 좋지 않나 합니다.

천승현 12편을 하셔도 결재를 안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김철성 새물리 쪽에서는 학회보고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한데요. JKPS는 긴급 제도를 보면 30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입이 좀 늘지 않겠습니까.

임성민 새물리 rapid는 현재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비로 10만 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성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계신데, 옛날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새물리를 했는데.

김귀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CAP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성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사람을 잘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라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할 때에도 파트타임해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DOI 연결하는 것 등을 담당 직원이 앉아서 하는 방법도 없겠는가. 인건비 포션이 늘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학회가 좀 고민해야 하고.

김승환 인력 부분은 따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을 잘 가진 것 같습니다.

부상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물리의 게재료 수입이 지출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이제 논문 편수가 조금 늘어나면 수입도 조금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황보창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물리가 물리학회의 시작이니까. 더 길게 보면 세종대왕님이 기뻐할 겁니다. 다들 영문 잡지로 바뀌고 없애는 중인데,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지켜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키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끊어버리면 후손들은 더 빨리 잊어버리죠.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홍순철 총설논문을 의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처음 입문할 때에 그것을 보도록.

김건호 새물리에 총설논문은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 하죠.

홍순철 예. 그것을 근원적으로 학생들이 참고할 만하도록, 그것을 읽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철성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리학과 첨단기술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프라이드도 있고 외부의 작위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해요. 제가 감사를 할 때에 문구를 적어서 물침에 해당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왜 총회 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고. 그 당시에 물리학과 첨단기술이 정시에 발간을 못하고, 원고가 안 들어와서 한 3달 정도 밀렸었어요.

황보창권 감사 지적 사항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환 저널의 편집위원들은 자기 분야 연구와 관련된 분야를 하시기 때문에 봉사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연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침 편집위원은 완전한 봉사라고 생각하세요. 저널 편집위원은 학과 평가에도 반영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죠.

홍순철 위원 자체도 그런 것이 있지만,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침에 쓰면 credit이 적잖아요.

김철성 부 교수님, 지금도 새물리 심사를 하실 때에 심사위원 선정할 때에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면, 새물리 투고 논문이 승인되기가 어렵다.

부상돈 정기호가 조금 그렇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건호 난 조금 반대의 생각인데. 조금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요.

김철성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논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양질의 논문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모독을 하는 것이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양질의 논문이 되도록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자가 나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황보창권 요즘은 그런 것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홍순철 그런데 가끔은 새물리 심사하는 것이나 Physical Review 심사하는 것이나 똑같은 레벨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귀년 지금은 저희들이 체제를 바꿔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새물리에 실어봤거나, 논문을 좀 많이 써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어요.

김승환 안 써보신 분들은 Physical Review 스타일로 심사하시니까.

부상돈 네, 새물리에 내보신 분하고 안 내보신 분은 차이가 큼니다.

새물리 발전을 위한 제언

홍순철 예전에 우리 50주년 기념할 때 권숙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학생들의 첫 논문은 새물리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솔로건으로. 왜냐하면 학생들이 SCI 논문 쓰라고 하면 자신들이 영어를 못해서 못쓰는 것으로 알거든요. 실제로는 논리가 딸려서 못하는 것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승환 이게 또 BK 업적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첫 논문은 새물리에. 구호가 딱 맞는데요.

홍순철 그러면 우리 물리학회도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귀년 SCOPUS 등재지가 되었으니 BK 사업단 학생들의 논문이 평가에 반영되므로 BK 단장님을 한번 모시고 새물리를 홍보하는 것이.

김승환 단장님께서 오히려 위원장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김철성 학회가 IBS 사업단이나 BK와 같은 큰 센터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우리의 새물리, JKPS, CAP에 실린 논문 숫자를 연말에 공표를 하는 거죠. 그게 나오면 굉장히 압력을 받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BK나 IBS는 물리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정작 물리학회에 논문을 한 편도 안 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부상돈 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 KCI에 들어가서 사업단 단장님 이름을 치면 국내학술지 기여도가 바로 나옵니다. CAP, JKPS, 새물리, 자기학회지 등 국내 저널 게재 편수, 논문 인용수, h-factor 등이 web of science와 똑같은 형태로 다 나옵니다.

김철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큰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국내 학회 기여도, 공헌도라는 점수가 꼭 있어야 한

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만 학회도 살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줘야지.

홍순철 같은 말씀으로 우리 물리학회에 IBS 단장님이 그리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황보창권 지금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재단 과제 심사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IBS 단장님이 없어요. IBS 단장이 아니더라도, 큰 과제를 하시는 어떤 분들은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서 빠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연구비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자원해서 해줘도 충분치 않은데 부탁해도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김승환 그게 기업들이 보면 CSR이라고 해서 사회적 공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CSR이 20% 정도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도 해야 하나까. 사실 모든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는 없고 틀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정도 퍼센트는 기업에서 해야 한다고 기업에서 그렇게 인식한다면, 그게 내부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걸 만들어요. 만들 때 본인들도 도움이 되고 CSR도 하고. 하나의 형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을 평가 받습니다. 기업의 사회 책무성에 대한 평가. 결국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평가할 때 사회 책무성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거의 규칙처럼 되어 다 하시게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밀당으로 해야 하는 게 있죠.

그럼 오늘 정말 멀리까지 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다 기재를 했고 다 공감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새물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

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록에 남기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님께서서는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신지요?

김귀년 Full text와 XML, DOI는 국내 출판사에서 하는지요?

김승환 네, 그 곳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임원진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상돈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게재료는 상승하지 않고, 논문 편수는 지금 대기 중인 논문이 많아서 조금 늘리고, 지부 특별호의 경우 지부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부 특별호는 현재와 같이 발간하고, 작은 워크숍에서 특별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부 특별호와 별개로 특별호 규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물리 출판과 관련해서 출판사를 바꿀 것인지는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환 그건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고. 조금 더 상의를 해보아야 하겠죠.

천승현 또 국외로 다 옮기고 나면 우리 학회 내의 편집 능력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JKPS도 현재의 시스템을 아직은 안 보낼 계획이거든요. 한번 가고 나면 노하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고요, 내부적으로 따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김귀년 그건 따로 편집 이사회에서 나중에 상의를 하죠.

김승환 자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년회 때 뵙겠습니다.